

조계사 사부대중 안녕하십니까? 높고 맑은 가을, 조계사 사부대중의 보살행의 향기가 깊은 하늘로 향기롭게 퍼지길 기원합니다.

조계사가 개최하는 ‘시월국화는 시월에 핀다더라’ 행사는 국화향기 나눔전의 서막을 알리는 행사입니다. 조계사에서 상시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꽃이 되어요” 캠페인은 부처님께 꽃공양을 올리는 것과 같은 새로운 신행운동입니다. 자비의 선행을 통해 이 세상을 아름답고 향기로운 꽃으로 장엄하자는 취지를 담고 있는 아름다운 실천입니다.

행복을 나누는 보시행, 다정하게 말하는 애어행, 이웃을 도우는 이행, 기쁨과 슬픔을 함께하는 동사, 이렇게 네 가지를 함께하는 사섭법 실천운동은 우리 불교의 기본정신입니다. 중생이 아프면 보살도 아프다는 대승불교의 실천정신을 오늘에 살려가는 것입니다.

이심전심, 부처님과 가섭존자의 본래면목을 확인하는 미소처럼 10월 조계사 경내를 가득 채우는 국화 꽃송이들이 우리의 마음에도 향기롭게 자리하기를 기원합니다. 저도 여러분의 정진에 맞추어 종단의 미래를 밝히는 자성과 쇄신 5대 결사의 실천에 진력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의 서원과 정진에 큰 진전이 있기를 부처님 전에 발원합니다. 감사합니다.